

디지털가전의 3대 특징

국내 가전시장에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 가지의 키워드로 볼 수 있다.

우선 스마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기의 경우, 몰라보게 달라졌다. 마룻바닥 먼지만 빨아들이던 청소기가 아니다. 삼성 하우젠 로봇청소기는 본체에 달린 카메라가 형광등이나 액자 등을 스스로 촬영해 기억장치에 지도를 작성한다. 이 지도를 이용해 스스로 위치를 인식해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다. 충전이 필요할 때도 현재 위치에서 최단거리로 이동해 충전을 완료한 후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 청소를 재개한다.

대우일렉 로봇청소기 베로도 제품 전반에 센서를 장착해 장애물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역시 청소 도중 배터리 잔량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하는 기능을 갖췄다. 아이로봇사의 3세대 룸바는 시작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안 공간을 인식해 스스로 청소 계획을 짠다.

로봇청소기, 세탁기가 영리해져

세탁기도 변모했다. LG전자가 선보인 신제품 세탁기는 하트스윙 기술로 섬세하게 세탁물을 하트 모양으로 움직여 주고, 안심센서를 통해 구석구석 숨어 있는 세제 농도를 감지해 세탁 시간과 헹굼 횟수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세계 최초로 의류는 물론 운동화도 세탁, 살균, 건조가 가능하다.

삼성 하우젠 드럼세탁기는 사용 중 에러가 발생하면 LCD화면을 통해 조치 방법을 가이드해주는 기능을 갖췄다. 통세척 시기를 자동 점검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고, 세탁물 무게를 감지해 세탁코스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적당한 세제량도 알려준다.

TV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LG LCD TV 엑스캔버스 다비드는 생방송도 돌려보는 타임머신 기능, 풀HD 영상, 잔상 없는 화질을 제공하는 120Hz 라이브스캔 기능까지 갖춘 영리한 TV다. 대우일렉 LCD TV 타임스퀘어는 250GB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탑재해 최대 25시간까지 녹화가 가능하다. 또 USB 메모리, PMP, 외장 하드디스크 등 다양한 외부장치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TV가 직접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캠코더로 촬영한 동영상도 메모리카드를 TV에 꽂는 것만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미니멀리즘을 들 수 있다. 냉장고와 TV, 에어컨 등은 갈수록 슬림해지면서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고 있다.

삼성전자 2008년형 지펠 냉장고는 미니멀 감각의 빌트인 핸들을 채용했다. 기다란 원기둥 모양의 도어 핸들을 냉장고 내부로 숨긴 것이다. 덕분에 한층 매끈하고 슬림해진 느낌을 준다. 세계 LCD TV시장은 2006년 초고화질(풀HD) 경쟁, 2007년 120Hz 경쟁에 이어 올해는 디자인과 두께 경쟁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LG전자 신제품인 '스칼렛 슈퍼슬림'은 44.7mm 두께로 세계에서 가장 슬림한 LCD TV다. 백라이트유닛(BLU)과 LCD패널 간 거리를 최소화하는 기술 덕분이다. 삼성전자 '파브 보르도 690'은 기존 제품보다 60% 슬림해진 44.9mm 두께의 132cm(52인치) 초슬림 LCD TV다.

공간적으로 최소 슬림화 구현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08 전시회에서 선보였던 25mm(1인치) 두께의 52인치 울트라 슬림 LCD TV를 내년 1분기에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하우스엔 에어컨 '바람의 여신II'는 에어컨을 작동시켜도 바람 토출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에 하우스엔 에어컨은 전면부 패널이 앞뒤로 이동하면서 열리는 틈 사이로 바람이 나오는 전면 슬라이딩 도어 방식을 채택했다. 단순히 미니멀한 디자인적 효과만 노린 것은 아니다. 바람날개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냉방력은 높이고 전기 사용은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럭셔리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럭셔리 디자인은 냉장고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LG전자는 올 상반기 디오스를 대표하는 명품 냉장고 '샤인(Shine)'을 출시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정밀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초정밀 가공 기술인 포토에칭 기법을 세계 최초로 냉장고 디자인에 적용했다. 스테인리스 패널 위에 하상림 작가의 꽃 패턴을 새겼는데 냉장고 표면에 20~30 μ m의 섬세한 선까지 살려냈다. 삼성 '재스퍼 모리슨' 냉장고는 미니멀과 럭셔리의 조화가 돋보인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외장이다 유럽인들의 식생활 습관을 반영한 저장공간으로 외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디자이너, 예술가의 작품으로 수놓아

에어컨도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휘센 에어컨 컨셉트를 라이프 컨디셔너(Life conditioner)로 정하고 이상민(유리 조각가), 김지아나(공예 디자이너), 하상림(서양화가), 함연주(조형예술가), 수지 크라머(색채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 등 6인의 작품을 디자인에 반영했다. 삼성 '아르마니 파브TV'는 그야말로 소장 가치를 지닌 가전제품이다. 조르조 아르마니의 절제된 디자인을 구현한 '아르마니/파브 TV'는 전원을 켜올 때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자제품이지만 켜올 때는 아름다운 인테리어 가구로 손색이 없다. 고급 우드 프레임에 수작업으로 7번 이상 덧칠을 해 우아한 질감을 낸 제품이다.

손을 대면 은은한 조명이 들어오는 리모컨은 전원, 채널, 음량 버튼만 은색 양각으로 새겨져 명품 액세서리 느낌을 준다. '아르마니-파브 TV'는 주요 백화점과 아르마니 카사 등 고급 유통망을 통해서만 한정적으로 판매된다. LG전자도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장식한 '엑스캔버스 크리스털' LCD TV를 출시했다. 1000개의 크리스털로 TV화면과 받침대 사이를 장식한 고품격 TV다. 초고화질(풀HD)로 잔상이 적고 5만대 1의 명암비로 또렷한 영상을 구현한다.